

질 들뢰즈 외, 『비물질노동과 다중』 (갈무리, 2005)

발제: 김 상 배

<序>

- o 위키피디아, 리눅스, 인터넷 커뮤니티, UCC, 카피레프트운동, 오픈소스, 온라인게임, 사이버행동주의, 프로슈머, smart mob 등과 같이 지금 “인터넷”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활동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?
 - 좀 더 세련된 개념과 이론으로 이들 현상을 이해할 수는 없을까?
 - 이들 현상을 거칠게 불러보면 인터넷, 정보혁명, 또는 통칭하여 ‘지식(knowledge)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을 한쪽 축으로 하고
 - 다른 한 축에는 기존에는 힘이 없었던(?) 소수자들이 “뭉치는” 현상, 통칭하여 ‘네트워크(network)’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의 발생
 - 그리고 지식과 네트워크가 결합하는 방식의 독특성에 “인터넷 현상”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?
 - 이렇게 지식과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연결 고리로서의 ‘권력(power)’ -->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권력은 “양면적인 속성”을 가짐
 - 이 책은 위의 질문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적 이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‘지적방랑(知的放浪)’의 한 사례로서의 이태리 맑시스트 진영의 “자율주의운동(Autonomia, 아우또노미아)”의 시각을 고찰(질 들뢰즈, 마이클 하트, 안토니오 네그리, 마우리쥬오 랏짜라또, 빠울로 비르노 등)
 - 특히 지식과 네트워크가 조합되는 한 형태로서의 “비물질노동(non-material labor)과 다중(multitude)”에 주목 --> 그리고 그 사이의 "biopower"
 - 따라서 여기서 제기되는 큰 질문은 세 가지, 즉 “a) 비물질노동, b) biopower, c) 다중”은 무엇인가?

<발췌>

- o ‘비물질노동’이란 무엇인가?
 - 이 책의 저자들은 비물질노동의 개념을 통해서 탈근대성(경제의 탈근대화, 탈산업화경제, 정보화, 정보경제, 서비스경제)을 이해하려고 시도 --> 다시 말해 정보경제로의 이행은 노동의 질과 노동과정의 성격을 변화시킴 --> 이러한 과정에서 비물질노동이 탈근대적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해짐
 - “상품의 정보적·문화적 내용을 생산하는 노동”(랏짜라또, p.182)
 - a) “정보적” 내용의 생산: 산업적 부문과 제3부문의 대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- 사이버네틱스와 컴퓨터통제를 포함하는 숙련기술을 다루는 노동
 - b) “문화적” 내용의 생산: 문화적·예술적 표준들, 유행들, 취미들, 소비규범들, 공공 여론 등을 정의하고 고정시키는 것에 수반되는 종류의 활동 --> 한때는 부르주아지

- 가 담당, 그러나 지금은 ‘대중지성’이 담당
- 마이클 하트는 두 가지 (또는 세 가지) 형태의 비물질노동을 지적
 - a) 지식 기반 제조업 - 컴퓨터 기반의 정보노동자(?)
 - b) 상징-분석서비스 (R. Reich를 인용) - ‘지식노동자(?)’
 - c) 정동적 노동(affective labor): 정동을 생산하는 노동 - 인간적 접촉과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는 정동 노동자? ‘문화노동자(?)’ 탈근대 장인? --> 소통적 행위
 - 친족노동, 돌봄노동(caring labor), 여성노동, 건강서비스, 연예산업, 문화산업 --> 정동적 노동이 생산하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들, 공동체의 형태들
 - 그렇다면 “정동(情動, affect)”이란 무엇인가?
 - 정동은 정서(情緒, affection)의 잠재성 측면(p.15도표)
 - 정서는 정동의 현실성 측면
 - 무엇인가를 재현하는 사유방식으로서의 ‘관념(ideas)’과는 달리 정동은 무엇인가를 재현하지 않는 사유방식을 의미 ex) 삼각형의 관념은 삼각형을 재현하지만, 희망이나 사랑과 같은 정동은 아무 것도 재현하지 않는다.
 - 요컨대 비물질노동은 의사소통의 형식들과 조건들을 창출하고 변경한다 - 생산과 소비 사이의 관계를 교섭시키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담당 - 사회적 관계를 생산 - 주체성의 생산
 - cf. 정동적 노동이란 뭔가를 ‘생산’하는 노동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 아닌지? 노동(勞動) vs. 정동(情動) --> 번역어로 보면 이 자체가 대립어가 아닌지?
 - 이러한 맥락에서 랏짜라또는 산업노동과 예술노동에 대해서 논함 --> 이제는 양자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... (p.233) cf. industry vs. art ???
 - 예술적 생산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 --> ex) 예술가 자신은, 무엇보다도 그의 대중의 취미만이 아닌 그 자신의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면서,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을 경험하기 때문
- o 비물질노동과 biopower의 관계?
- 이러한 비물질노동은 생정치(生政治, biopolitics)적 잠재력이 있다, 다시 말해 정동적 노동이 biopower를 갖는다
 - biopower --> 생권력(生權力) or 생능력(生能力)?
 - power의 현실성 측면 --> 권력(pouvoir) cf. 완력(腕力)
 - power의 잠재성 측면 --> 능력(puissance) or 활력(活力)
 - 위로부터의 생권력 vs. 아래로부터의 생능력
 - 생권력(푸코): 인구를 창출하고 관리하며 통제하는 통치력, 즉 삶을 관리하는 힘
 - 비물질노동을 둘러싼 탈근대화(정보경제)의 과정에서 위로부터의 생권력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생능력의 가능성에 주목(네그리) --> 마이클 하트는 ecofeminism에서 위로부터의 생권력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생능력의 형태를 보고자 함
 - 그런데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생능력은 ‘무장소(無場所, non-place)’의 인식과 더불어 나와야 한다
 - 즉 ‘시장을 통한 생산조직의 세계적 확장’이나 ‘모든 사회적 삶이 자본주의 생산 안으로 흡수’되는 의미에서 파악된 지구화가 제공하는 ‘측정할 수 없는 무장소’가 생산적 활동에 새로운 생능력의 가능성을 제공한다

-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동은 i) 행동할 능력, ii) 변형의 능력, iii) 전유의 힘, iv) 확장적 힘으로 파악되는 “행동할 능력” cf. 그런데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?

o 일반지성 vs. 대중지성

cf. 왜 p.327처럼 대중지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? 원어? 집단지성? 지성? minds?

- 맑스의 일반지성 - 생산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면서 생산력으로 작동하는 추상적 지식 --> 이는 고정 자본 속에 객관화된 지식, 기계들의 자동 체계 속에 구현된 지식 (하드웨어에 구현된 鐵-지식)--> 사회적 생산의 중심점을 구성하며 삶의 모든 측면들을 예정하는 지식의 총체 - ‘인식론적 패러다임’에 해당
 - 일반지성은 패러다임들, 코드들, 형식화된 절차들, 공리들과 같이 ‘지식의 객관적 구체화’들로 구성 --> “현실적 추상”
- 대중지성(비르노) - 기계 속에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노동인력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식 (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活-지식)
 - 대중지성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생산과정의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의 사회적 노동인력의 총체를 의미
- 비르노가 들고 있는 대중지성의 사례
 - a) 공장에 입사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이미 사회화된, 파아뜨의 신규 고용자들
 - b) 대학들을 봉쇄함으로써, 실험과 구축에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생산력의 형식 자체를 문제 삼는 학생들
 - c) 임금을 둘러싼 투쟁이 언어, 삶의 형식, 윤리적 모델들과의 대치 및 마찰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었던 이민들
- 그렇다면 이들 대중지성들 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? 랫짜라또 (p.281)
 - 공감, 신뢰, 상호적인 소유 --> 세계 및 자아 구성의 전제조건
 - 이에 비해 "차이"는 지성들 사이의 협력의 동력 --> 이러한 점에서 혼성, 마주침, 간섭 등이 지성 간 협력의 다른 한축을 이룸

o 새로운 주체성의 출현

- 랫짜라또와 네그리가 제기하는 테제(p.290): "노동은 완전히 비 물질노동으로 변형되고 노동력은 ‘대중지성’으로 변형된다 --> 그리고 이러한 ‘대중지성’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.
 - 비물질노동의 주기는 “자신의 노동 자체를 그리고 기업과 맺는 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자율적인 노동력에 의하여 미리 구성된다.”(p.289)
- 비물질노동의 활동에서는 노동시간 vs. 재생산시간 vs. 생활시간 vs. 향유시간 등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짐 --> 따라서 비물질노동은 주체성의 “재생산형태” 속에서 재생산되는 것이지 “착취형태” 속에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
- 비물질노동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과정을 지적
 - a) 생산의 자본주의적 조직화에 대항한 생산적 활동의 독립성이 증대 --> 자본주의적 지배와 관련하여 지성적 노동력과 비물질노동력으로서의 노동력의 독립성이 증가
 - 노동이 점점 자본을 규정하게 된다
 - b) 대중지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둘러싼 자율적 주체성의 구성

- 계급 구성의 주체적 발전이라는 것은 아직 권력의 손아귀에 들어오기 이전 단계에 주어진다 - “학생들”이 갖는 “새로운 적대”의 관념형성에 주목 - 다시 말해 ‘노동의 비물질화’가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주체를 구성한다 -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 - 새로운 권력관계를 규정
- 근대정치 구성의 세 시기별 틀(scheme)의 관점에서 볼 때 ‘지배의 시대’와 ‘훈육의 시대’를 넘어서 ‘소통의 시대’에 이르러 소통의 주체들이 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임
-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인의 형상 변화를 그림: 지배의 시대(지식인은 노동과정과 무관) --> 훈육의 시대(지식인은 어쩔 수 참여해야 하는 상황) --> 소통의 시대(지성은 완전히 생산과정의 내부에 존재)

<토론>

- 네트워크와 다중이 조합되는 formalar는?
 - “네트워크와 패권의 조합”에 비해서 “네트워크와 다중의 조합”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? 다시 말해 “패권세력”에 대해서 “대항세력”이 더 힘을 얻게 되어 성공하는 조건은? 이 책에서는 언급이 약함
 - 정보화시대의 다중, 또는 디지털 다중은 어떠한 모티브를 가지고 움직이는가?
 - 다시 말해 왜 위키에 글을 실고,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가? 남는 것도 없는 데...
 - 만약에 “최종결과물이 없는 활동=비물질노동”이라면, “이익이 남지 않는 활동”은 무엇인가? 자본주의(資本主義)를 넘어서 “지본주의(知本主義)”?
- 자본과 제국적 주권의 지배에 대항하여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다중이 권력(power)를 얻게 되는 계기? 이를 엿보게 하는 사례?
 - 오픈소스의 규범적 파워 - offensive
 - 인텔 vs. 리눅스 - 정보산업의 오픈소스
 - 구글 vs. 위키 - 인터넷의 오픈소스
 - 언어적·문화적 특수성의 방어벽 - defensive
 - 디지털 언어코드: 한글, 네티피아, 다국어 도메인- 언어민족주의
 - 네이버, 한류, 싸이월드
- 포스트 포드주의와 도요타주의로 대변되는 산업 환경을 넘어서? 왜 지금 자동차산업?
 - 도요타주의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포드주의적 소통구조(생산이 소비를 결정)를 역전 --> 도요타주의는 소통적 행위(재고 파악의 간판방식)가 도구적 행위(자동차 생산라인)를 통제하는 사례 cf. 그러나 양자는 여전히 분리 --> 이게 벌써 언제 적 이야기인데... 이런 논의를 우리는 새로운 외래이론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?
 - 이들이 보는 “post-post-Fordism”은 없는가? 좀 더 전개된 정보산업의 생산양식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된 논의는 없는가?

- 커뮤니케이션 매체라는 차원에서도 너무 old-fashioned? 다중이 엮어지는 과정에서 “인터넷”의 역할
 - 이 책의 글들은 매스미디어, 특히 TV시대의 시대적 환경을 배경
 - 하이퍼미디어의 시대 또는 소위 웹2.0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의가 제시하는 대답?

- 정보화시대의 효율적이고 정당한 질서(order)를 구축하는 데 정말로 자율주의적 ‘다중’만 있으면 되는가? “자율”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?
 - “국가(state)”의 역할을 설정할 소지는 없는가? 맑시스트 국가론을 넘어서... 꼭 “타율주의(?)”의 시각에서만 국가를 볼 필요가 있는가?
 - 대항담론으로서의 지식네트워크 vs. 조정자로서의 네트워크 지식국가

- 끝으로 다시 던지는 질문은?
 - 우리가 “인터넷권력”에서 탐구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은 얼마나 무슨 도움을 주는가?